2019 새 설계 유 진 섭 정읍시장

# "'세일즈 정읍'으로 '희망 넘치는 행복도시' 실현 온 힘"

"'희망 넘치는 정읍' 실현을 위해 비즈니스 시장이 되겠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인터뷰에서 "취임이후 늘 현장에서 고민하고 연구해 시정 발전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올 한해도 희망이 샘솟는 행복도시 정읍을 만들어 나가면서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행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화와 관광, 산업단지 등 지역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해 시민의 실제 소득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유 시장은 '세일즈 정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시는 2019년~2020년을 정읍 방문의 해로 운영하며 '감동 호르몬 분출, 체험여행 1번지 정읍!'을 비전(vision)으로 오는 5월 정읍방문의 해 선포식도 갖는다.

또 VR·AR 체험박람회를 비롯해 설날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고 동학농민혁명과 백제가요 '정읍사', 태산선비문화 등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에 주력한다.

유 시장은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 문화·관광 자원 고부가가치화
## 시민 소득·행복지수 향상 전력
## 맞춤형 일자리·안전망 확충도

이와관련 유 시장은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기술창업 촉진을 비롯 첨단과학산업 단지 기업유치와 2단계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입주기업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가속화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청년 메이커센터 조성, 27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빈 틈 없이 추진한다.

건강하고 똑똑한 농업 기반의 구축에도 역점을 둘 생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에코축산클러스터사업단 운영과 냄새저감 미생물제재 활용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청정 축산 정읍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시대 과학기술과 접목시킨 스마트팜 활성화와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과 함께 미래 경쟁력 작목 발굴과 육성,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도 강화한다.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복지와 교육정책도 제시했다.

유 시장은 "복지와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강화와 일·가정 양립 사회기반 조성,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의 시행과 농촌복지택시 확대, 장애인 바우처 택시·전기 저상버스도 도입도 그 일환이다.

더불어 고등학교 졸업생 13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장학금과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복무 장병들에게 상해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시민 밀착형 문화·생활 SOC 확충과 안전망 구축에도 행정력을 결집한다는 입장이다.

도심에 특색 있는 벤치를 설치하고 성황산에서 초산과 아양산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형 둘레길을 조성하는 한편 165면의 도심 공영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

여성화장실에는 긴급 호출벨을 설치하고 범죄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해 안전사회 조성에 나선다.

재해위험지구 개선과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안전한 식수원 공급, 전기자동차 보급,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 계층 대상 전용 마스크 보급 등 생활환경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구상이다.

끝으로 유진섭 정읍시장은 "상생과 화합을 통해 지금까지 구상하고 마련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선 7기 정읍시정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여 동안 준비한 밑그림에 색을 입히고, 구체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2019년도 주요 사업은**

▲'세일즈 정읍'으로 돈이 모이는 정읍 만들기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건강하고 똑똑한 농업 기반 다지기
▲복지와 교육 기반 강화사업 추진
▲시민 밀착형 문화·생활 SOC 확충과 365일 안전망 구축

# 익산시, 산지 태양광 허가 요건 완화

## 관련법 개정 경사도 높아도 설치 가능

익산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산지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했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태양광시설이 산지전용허가대상이고,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타 지목(농지나 대지 등)에 비해 투입되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이 저렴해 과도한 산림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관리법을 전반적으로 검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로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또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및 태양광발전설비 처리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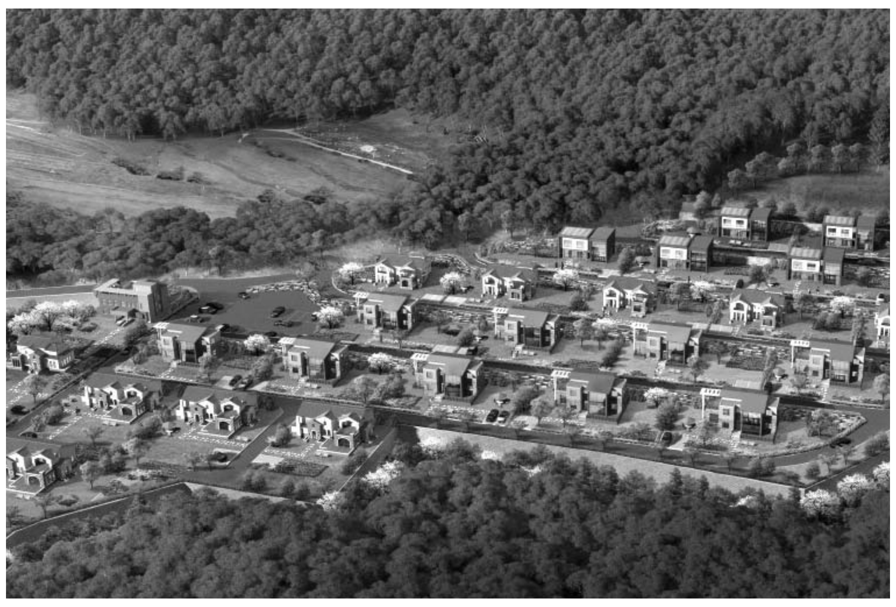
산지를 복구하는데 드는 산지복구비를 태양광설비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산정해 부과한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위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변경이 불가하고, 태양광발전시설 기간 후 임야로 복구하게 바뀐 것"이라며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점차적으로 차단되고,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NAVER 공식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 순창읍 남계리 전원마을 31가구 조성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일대에 전원마을이 조성된다.

10일 순창군에 따르면 남계리 일원에 전원주택, 공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상선약수 남계지구 전원마을 사업<조감도>을 착공한다.

이 일대 2만㎡에는 농촌주민, 도시민, 은퇴자의 정주를 위한 단독주택 31채가 들어선다.

진입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녹지공간도 확보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순창군 관계자는 "전원마을 일대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도보로 10분 거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 거주 여건이 좋다"며 "삶의 질을 높은 전원마을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군산시민 올해도 문화강좌 쉽게 듣는다

## 커피숍·식당 등 동네문화카페 사업 420곳으로 늘려

군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상생활 공간을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을 이어간다.

동네문화카페는 평생학습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문화강좌를 즐기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커피숍, 식당 같은 소상공인 사업장 276곳에서 395개 강좌가 진행돼 시민 270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올해 강좌를 420개로 늘려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장소도 상가뿐 아니라 경로당, 아파트 관리실, 회의실, 직장 공용공간까지 확대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 인재양성과(063-454-2600)에서 받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남원 동계훈련 각광…올 84개팀 1480명 '구슬땀'

남원 지역이 겨울철 전지훈련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인 유소년 축구팀과 태권도, 테니스팀 등이 전지훈련을 위해 시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 축구인 U-12와 U-11, U-10의 25개 클럽 84개팀 소속 1480여명의 선수 및 지도자들이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시에 머무르고 있다.

이들은 전지훈련과 함께 남원 스토브리그에 참가하기 위해 지역에 와 있다. 전지훈련 중인 유소년축구팀은 수원 삼성과 아산 무궁화, 울산 현대 등 프로팀 산하 우수팀이 다수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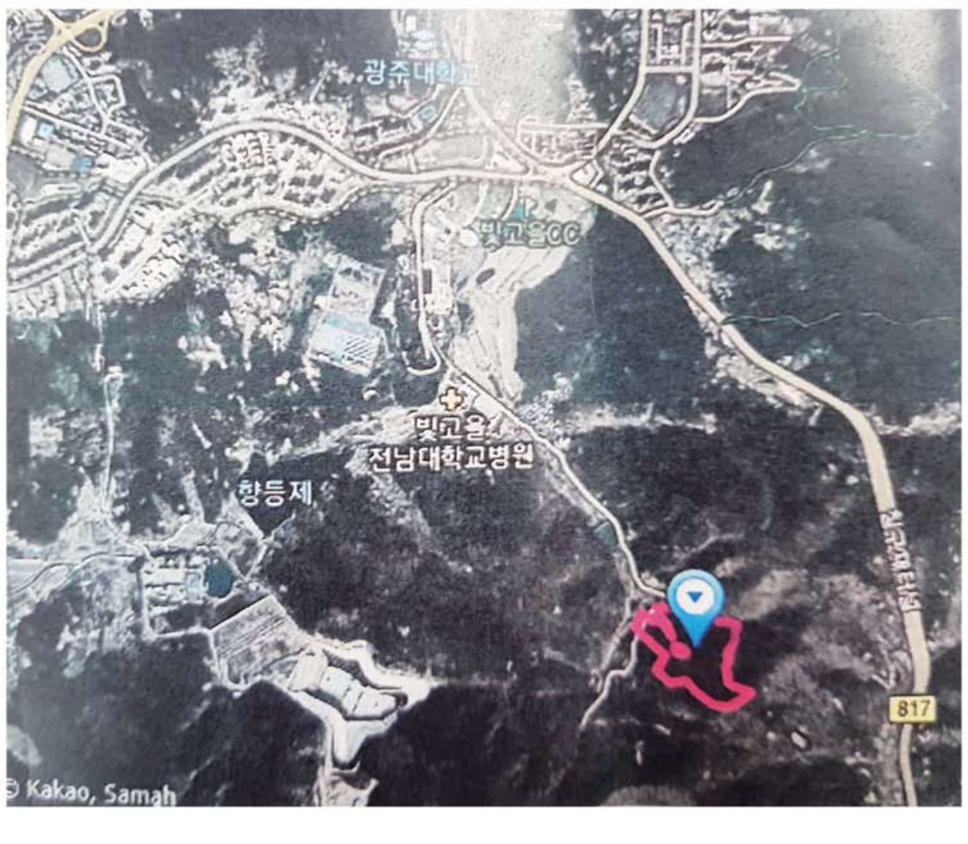
시는 우수 유소년 축구팀이 전지훈련을 하면서 많은 팀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니스 선수들도 전지훈련을 위해 남원을 찾았다.

춘향골 다목적구장과 실외코트에서는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7개 체육고교 50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지훈련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 이용, 특산품 쇼핑 등 1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도로접합**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지분, 500평씩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8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